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요즘 학부모 노릇 쉽지 않아요

김 성 열

새 학년도를 맞이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부모는 '학부모'로서 새롭게 탄생한다. 중등학교 학부모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낯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학부모가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며, 긴장하기도 한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은 자녀를 키울 때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자녀교육에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알려주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학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부모는 스스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이전과는 다르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또한, 누군가가 "요즘 시대는 학부모의 공적(公的) 역할이 커졌다"고 말했듯이,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교육에의 참여가 제도화되면서 개인적 수준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을 넘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

학부모가 스스로 기대하거나 밖으로부터 요구받는 역할들은 매우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은 자녀의 공부에 단순히 도움을 주는 '학습 도우미'의 역할을 넘어서서 자녀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계획하고, 다양한 학습자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가려내는 '학습설계사'로서 역할하고자 한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현장의 변화와 더불어 이달부터 주5일제 수업의 전면적 시행은 학습설계사로서 학부모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단위학교 의사 결정에의 참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학부모들은 이제 소극적으로 학교의 요구에 응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운영과 학교교육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 외에도,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의 후견인으로서 교육 전반에 관한 학부모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는 '학부모 권리 주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요구받기도 한다.

예컨대, 체벌금지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학부모들이 있듯이, 그들은 자녀가 보다 좋은 교육여건에서 학습자로서 존중받으면서 질 높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요구한다.

이렇게 학부모들은 안팎의 기대와 요구에 의하여, 과거에 비해 '짐이 더 무거워진 학부모'로 바뀌며, 학부모 노릇에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왜 그런가? 아마도 적지 않은 부모들이 변화하는 학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면 경청에 앞서 큰 소리로 야단만 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자녀가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데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복잡한 대입요강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학부모 노릇하기 어렵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부담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학부모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은 아니다. 변화된 학부모로서의 역할 수행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학부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학부모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찾아가는 학부모교실'과 같은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그리 용이하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은 자녀를 돌보거나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 부부 모두 일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협력하여 학부모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고,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주5일 근무제나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시 적절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은 학부모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고, 학부모의 도움은 학부모의 역할 수행 역량 강화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경남대부총장·교육학〉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우리 아이 건강한 눈 만들기

조철웅

요즘 아이들은 조기교육의 영향으로 눈을 혹사하는 일이 많다. 휴식시간에도 게임기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가까이함으로써 눈의 피로를 풀어줄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시력이 나쁘면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두통도 생길 수 있고, 물체를 보려고 인상을 찡그리게 되면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은 시력이 나빠도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입학 전 시력관리는 평생시력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시력이상을 발견하고 치료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통 만 3세가 되면 시력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고 그 후로도 정기 시력검사를 해야 한다.

어린이 시력 저하의 원인은 대개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이상이며 그 중에서도 근시가 가장 많다.

근시란 가까운 곳이 잘 보이고 먼 곳이 잘 안 보이는 눈을 말하며, 원인은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컴퓨터나 게임기, 독서 등을 눈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하는 것이 주원인이라는 추측뿐이다.

완전한 근시 예방법은 아직 없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장시간 하게 되면 눈의 섬모체근이 수축돼 쉽게 눈이 피로해지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가성근시를 유발할 수 있다. 가성근시는 근시는 아니지만 근시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치료법이 다른 만큼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조명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방향에 조명을 배치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또 눕거나 엎드리지 말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 책과는 35~40㎝의 거리를 두고 공부하는 것이 좋다. 또 45~50분의 독서나 컴퓨터 사용 후에는 5~10분간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휴식 때에는 수축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먼 곳을 보는 것이 좋으며, 텔레비전을 멀리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음식은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카로틴 성분이 풍부한 당근이나 시금치 등이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근시 안경을 끼면 눈이 더 나빠진다고 일부러 안경을 씌우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안경을 쓴다고 해서 근시가 더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성근시 및 잘못된 안경착용은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안과에서 검사 후 착용해야 한다.

원시는 근시와는 반대로 먼 곳이 잘 보이고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는 것이지만 어린이들은 조절력이 좋기 때문에 가까운 것도 잘 보인다. 따라서 보통 원시가 있는 아이들의 시력은 대개 좋은 편이지만 고도 원시 등이 있으면 약시나 사시 등을 초래할 수 있고 독서시에 두통과 눈에 피로를 느끼므로 안경교정이 필요하다.

난시는 보통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지만 심한 난시는 두통, 눈 피로를 초래할 수 있고 약시의 원인이 되므로 이 또한 교정해야한다.

약시는 근시·원시·난시 등을 안경으로 교정해도 정상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사시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눈이나 뇌에 이상이 동반돼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약시는 조기에 발견해야 치료가 가능하다.

사시는 두 눈이 동시에 물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한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현상인데 어린이에게 사시가 있으면 시력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밝은광주안과 원장〉

기 고

나눔의 실천 '헌혈과 자원봉사'

문 인

광주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다. 이는 역사를 통해 빛고을 광주에 주어진 숙명과 같은 것이다. 지난해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때 시민 모두가 뜨겁게 환영하고 광주시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던 것은 그 좋은 예일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민주·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더욱 빛을 발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눔의 실천이다. 나눔이란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남이 가지지 않은 재능일 수도 있다. 이런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혈과 자원봉사다.

광주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 '주먹밥과 헌혈'로 대표되는 자랑스러운 나눔의 실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 광주시민은 피 흘리며 쓰러진 이웃을 위해 주저 없이 자신의 피를 뽑았고, 식량부족과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쌀을 내고 주먹밥을 나눴다. 역사의 비극인 5·18민중항쟁을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공동체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밥과 피 속에 담긴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마음이 빚어낸 감동 때문일 것이다. 이는 광주시민들 가슴에 내재되어 있는 나눔의 정신이 자발적인 참여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런 결과로 우리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금 광주시는 이런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되살리고 확산하기 위해 헌혈운동과 자원봉사 40만명 배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큰 의미를 지닌 헌혈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해 '전국 제1의 헌혈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5·18 당시 부상자들이 혈액 부족으로 사경을 헤맬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해 귀중한 생명을 살려냈던 것을 기념해 매년 5월을 헌혈의 달로 지정, 시민 릴레이 헌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광주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광주시는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어 가는 시점에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단위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자원봉사자 수를 40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 자원봉사자 배가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으고 뜻있는 지역단위 자원봉사 조직과 손을 잡아 광주를 명실상부한 '자원봉사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헌혈운동과 자원봉사 활동, 이 두 가지 모두는 나의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다. 우리 광주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는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를 나누어주고 지역에서 한바탕 잔치가 열리는 날에는 한걸음에 달려가 힘을 모아온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잘 계승해 나가야 한다.

지금 광주는 2011년 133억불 수출 금자탑을 쌓으며 명실상부한 생산형 수출도시로 힘차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아직도 갈 길은 남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해가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는 헌혈과 자원봉사 운동은 광주공동체를 시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광주로 나아가게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으며 148만 시민 모두의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공사현장 건축자재 말끔히 정리해 보행 불편 없게 해야

도심을 지나다 보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왠지 공사현장을 지나다 보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심이 가기도 하고 인도나 도로에 널려있는 건축자재들은 보행에 상당한 불편을 준다.

혹시 '못에라도 찔릴까, 시멘트나 모래에 옷이 더럽혀지지나 않을까, 날카로운 부분에 비싼 옷이 찢기지나 않을까'하며 이것들을 피해서 다니곤 한다.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이야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해야하는 입장이겠지만 수많은 보행자는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건설현장을 다니다 보면 100이면 100 전부다 "출입 금지" 또는 "보행 금지"라든가 "공사중, 돌아 가시요."라고 쓰여있지 "이곳은 안전하오니 보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이 곳은 공사중이니 ○○로 돌아 ○○로 가십시오"라는 친절한 안내문을 붙인 곳은 거의 없다.

이런 안내문구에 대해 늘 의구심을 가져왔다. 공사로 인해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도 왜 공사 당사자 위주의 안내문인 "보행금지"나 "돌아가세요"라고만 써붙이는가.

내 생각은 이런 공사관계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보행자 입장에서 "이곳으로 보행해 주세요"라는 안내문을 만들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통로를 안내해주는 게 제대로 된 공사판 안내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보행자들은 한결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공사현장인데 불편은 감수하라"라는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제는 시민들이 이런 관례에 익숙하다 보니 공사현장을 지나면서 "불편하니 치우시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다.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은 공사현장에서 보행자를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 보행을 위해 인도는 최대한 확보되어야 하고 건축자재 같은 것은 말끔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보행자를 위한 배려라기보다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 생각한다.

▲유상규·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사 설

여수박람회 공사현장 건설장비 철수라니

여수세계박람회 건설공사 현장에서 업자들이 건설장비 임대료 체불에 항의하며 7일 오전 8시부터 장비를 철수해 일부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다. 개막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준비에 급피치를 올려도 모자랄 판에 공사마저 차질을 빚고 있으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수건설기계연합회는 이날 회원 50여 명이 트럭 10여대와 굴착기 20여대 등 30여대의 장비로 일을 해왔으나 최근 4개월간 총 5억 원대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해 장비 투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체불은 D사 9천200만 원 등 20여 곳이며 현장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철수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현장은 빅-오션장, 주제관, 한국관, 환승주차장 등 7곳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현장은 개막 전에 마무리돼야 하는 핵심 시설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준비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박람회 조직위 측이 하청업체의 내부 문제로 인해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 사태의 장기화도 배제할 수 없다. 발주처인 조직위와 원청사인 현대건설이 모두 정상적으로 공사비를 지불했으나 하청업체가 자금 등 개별 사정을 이유로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수박람회 시설 공사는 착공이 늦어져 개막 전까지 제대로 완공될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정부 출연금 중 이월된 건설사업비만 549억 70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시간을 쪼개도 모자랄 판에 공사 중단이 계속된다면 개막행사 차질은 물론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조직위는 여수박람회가 세계인이 주목하는 국가적 대사라는 점에서 속히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태를 야기한 원인을 따지되, 장비가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직위가 방관한다면 그건 직무유기다.

보험사 자동차부품 '꺾기' 관행 근절해야

은행 대출에서나 있어왔던 '꺾기' 관행이 자동차부품 거래에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마진이 줄어든 자동차부품 판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자동차부품판매협동조합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차량 수리에 들어간 부품값을 지급하면서 대리점 청구액의 5~7%를 사전에 뗀 뒤 나머지만 지급하고 있다. 사고차 운전자가 정비업소에 수리를 맡기면 업소는 부품 대리점을 통해 필요한 부품을 가져다 쓰고, 대리점은 보험사에 부품값을 청구하게 된다. 이때 보험사는 일정 비율의 '꺾기'를 한 뒤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꺾기' 관행은 보험사가 대리점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해주고, 현금으로 결제를 해준 대가라는 인식하에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보험사의 '꺾기' 관행이 알려지면서 택시공제 등 여타 공제조합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관행은 부품업체 경영난을 가중시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광주에 120여 부품업체가 영업을 했었으나 현재는 100여 업체로 줄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자동차부품 마진이 15% 정도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보험사들이 가져가고, 세금·인건비·운송비 등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로 사무실 유지비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보험사들의 '꺾기'는 엄연한 불법 영업행위요 대리점에 대한 횡포나 다름없다. 보험사들이 영업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기업 논리를 앞세우는 데 대해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정당한 영업행위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대리점과 상생하는 것도 보험사들이 지켜야 할 기업윤리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감독당국도 이런 불법행위가 더 이상 뿌리내리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개선책도 내놓을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리더의 急先務

국가의 리더나 조직의 수장이 일을 행함에 있어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일의 선후(先後)와 시종(始終), 본말(本末)을 모르면 희망이 없다.

맹자(孟子)에 '급선무(急先務)'라는 구절이 있다. 급하게 먼저 힘써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당장 급하지 않은 것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경계하는 글이다.

현명한 리더는 알아야 한다. 마땅히 급히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知者無不知也 當無知爲急). 인자한 리더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먼저 주변에 두는 것이 급선무다(仁者無不愛也 急親賢之爲務). 리더는 세상을 모든 것을 챙기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사랑해야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일이 있고 발탁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묘한 언행 등으로 리더의 눈과 귀를 가리는 환관 조고(趙高)와 같은 인물을 경계하고 축출하지 않으면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과오를 자신이 다 감수해야 한다. 조고는 모반을 일으키려 하면서 여러 신하들이 따라줄 것 같지 않자 2세 황제인 호해에게 "사슴을 말이다"고 바쳤다.

호해가 말을 마치고 좌우의 신하들을 둘러보자 잠자코 있는 사람보다 "그렇다"고 긍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후에 그는 부정하는 사람들을 골라 죄를 씌워 죽였다. 이를 두고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성어가 나왔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고 권세를 함부로 부리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대학(大學)'에도 선후를 제대로 파악하고 급선무를 제대로 처리하는 지도자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 말하고 있다. 주객(主客)이 전도되고 선후가 바뀌고, 본말이 거꾸로 되어서는 희망이 없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진심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주변에 두는 것이 리더가 갖춰야 할 급선무이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